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장 석 주
시인

앵두나무에 박새 몇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앉고, 불두화는 꽃을 흐드러지게 피웠다. 오늘 아침 앵두나무 가지에 매달린 앵두는 붉게 익어가는 중이다. 새벽에 어린 고양이는 내 품에 안겨 아기처럼 가르랑거린다. 어린 고양이의 털에 코를 묻고 있으면 기분 좋은 햇빛 냄새가 난다. 나는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날씨 속에서 산다. 해가 떴다 지고, 어둠 속에서 달은 야위었다가 차오르기를 반복하고, 어린 고양이는 반드시 성체 고양이로 자라나는 그런 합법칙의 세계에서!

남해 물결은 섬과 섬 사이에서 잠잠하고, 항구마다 정박한 배들은 묶여 있다. 동해에는 돌고래와 귀신고래들이 새끼를 데리고 떼 지어 유영을 한다. 먼 데서 달려온 파도는 해변에 포말을 남기며 사라지고, 깨끗한 하늘엔 적멸보궁 같은 흰구름이 피어오르는데, 꿀벌들은 지상에서 날개를 붕붕거리며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고, 복숭아나무 가지에서는 열매들이 최선을 다해 여문다. 지난가을 어머니가 담근 고추장에는 순한 단맛이 들고, 장을 가득 채운 항아리들은 반짝거린다.

간밤엔 별똥별 몇 개가 동에서 서로 횡선을 그으며 흘러가고, 올해 처음 목격한 반딧불이의 군무는 신기했다. 실내 등을 다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록빛 인광을 반짝이며 떠다니는 반딧불이를 자정 넘어까지 보다 잠들었다. 새벽에 깨어나 책상머리에 앉아 몇 년째 쓰던 책의 마지막 줄을 쓰고 마침표를 찍었다. 나를 누르던 압박감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낙관은 이스트를 낳은 빵처럼 부푼다. 오늘 아침은 혈압은 높지도 낮지도 않고, 당뇨 수치는 정상이다. 연체료가 붙은 미납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적은 없고, 두루마리 휴지도 몇 달은 쓸 만큼 넉넉하며, 오늘 외출할 때 신고 나갈 구두는 새 구두다. 주방에서는 딸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텃밭에서 딴 토마토를 믹서기에 갈아 주스를 만드는 중이다.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한때 노름에 빠진 적이 있다. 외적 우연에 판돈을 걸지만 내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푼돈을 털리고 분노와 허탈감을 안고 귀가하곤 했다. 시 한 줄 쓰지 못한 채 노름으로 허송세월하는 나 스스로가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역으로 나가 기차를 타고 예정에 없던 여행을 떠났다. 일제 강점기 때 지은 건물들이 유적처럼 남은 남쪽의 항구 도시였다. 그 도시에 지인은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쏘다녔다. 어느 날 숙박업소에 들어 불을 끄고 잠 들려는 순간 옆방에서 라디오라도 틀었을까, 빌리 조엘(Billy Joel)이 부르는 'The River of Drems'이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왔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노래를 듣다가, 아, 참 좋다, 라고 나는 감탄했다. 빌리 조엘은 밤중에 강가를 서성이며, 나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라고 노래했다. 나 역시 낯선 고장에서 무얼 찾아 헤매는 것일까. 무언가가 내 생의 한 찰나를 흔들고 지나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한 목소리가 내게 물음을 던지고, 나는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낯선 여관에서 나와 항구의 한 식당에서 조반을 먹고 돌아왔다.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생의 진실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 막막하던 시절에서 서른 해쯤 흘렀다. 그리고 이 여름 아침에 나는 다시 빌리 조엘의 노래를 듣는다. 빌리 조엘은 여전히 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라고 노래한다. 나는 찾으려던 인생의 진실을 찾았을까? 나는 젊음을 탕진하고 속절없이 나이를 먹으며 늙어간다. 세면대에서 물을 쓴 뒤에는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밤하늘을 가린 지붕 아래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의 번뇌에 빠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직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간다. 고작 이 여름날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몇 마디 할 수 있을 뿐이다. 저녁답 마당귀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작약꽃,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는 어린 고양이, 다리미 열기가 남은 면 셔츠의 감촉, 얼음덩이 몇 개를 띄운 토마토주스, 그리고 빌리 조엘의 노래! 서른 해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왜 빌리 조엘의 노래를 들으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까.

종교칼럼

부모 보은(報恩)의 길

김 원 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매년 6월 1일이 되면 원불교 교단에서 일제히 육일대재(六一大齋)를 거행한다. 육일대재는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를 비롯하여 역대 제불제성 및 부모선조 일체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효를 모든 선행의 기본으로 보셨다. 효는 예로부터 인륜의 으뜸가는 규범이 되어 왔으며 모든 성자들이 그 실행을 권면했다. 불교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는 태중에서부터 출생과 성장까지의 모든 수고로움을 밝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고, 성경에도 살아 있는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대종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큰 은혜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밝혀 주시고 이 네 가지 은혜가 아니고는 잠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여 보은의 도리를 다하도록 하였다. 사은 중 부모 피은의 강령을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하여 근원적인 관계를 깨우쳐 주시고 피은의 조목을 통하여 은혜된 구체적인 내력을 밝혀 주셨다.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써 다시 보은의 강령과 보은의 조목을 들어 자녀의 도리를 일러 주셨고,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밝혀 배은을 경계하고 보은을 권장하셨다.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려면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생각이 바르지 않고 그 행동이 바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데에도 부모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아는 것으로서 바른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나 참으로 알면 실행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면 앎이 깊어진다.

'부모에 대한 피은(被恩)·보은·배은(背恩)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 다 부모 배은이 된다 하였다. 부모에 대한 은혜는 사은 중 어느 은혜보다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은혜다. 따지고, 생각해서 아는 은혜가 아니라 그대로 느껴지는 은혜다.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란 그대로 하늘이 맺어 준 천륜(天倫)이며 본능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따질 것도, 생각할 것도 없는 무한 자비이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못하다. 어머니의 보호 밑에 있을 유년기에는 부모가 자기 세계의 전부다.

어머님의 품은 가장 편한 안식처요, 의지처다. 그러나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하면서부터 마음도 부모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품안의 자식이 자식이지…" 하는 말을 하게 된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나 자녀는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리지 못한다. 당연한 양 받아들이기도 하고 지나치다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적다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부모 사랑을 알려면 자식 낳아 길러 보아야 한다고 한다.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에 비추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헤아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사랑은 크게 알고 받은 사랑은 소홀하게 생각하며 곧 잘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대종사께서는 "부모가 아니어도"라는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셨다.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몸을 얻게 됨"과 "사랑을 다하고 수고를 잊으며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심"과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부모님 은혜를 비하여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한다. 그러나 이 크고도 절실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를 저버리는 사회는 사랑이 없는 황량한 사회다. 부모 자녀 사이가 지극한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 되고 형제간의 우애와 이웃간의 인정이 넘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가꾸어 가는 일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기 고

망백(望百)의 시인 회두리판 시집을 읽으며

황 옥 주
수필가

진성헌 시인의 열여섯 번째 시집 '잘 살고 갑니다'를 받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글제만 보고 울컥해 보기는 예전엔 없었던 일이다. 유언서를 받은 기분이랄까 미지의 숲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새 무덤 비문을 대한 심회랄까. 숙연해진 마음에 눈물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시집을 펼쳐 봤다. 표현이 눈에 익다. 그의 시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글자만 읽어서는 잡힐 듯 아닌 듯 보일락 말락 안갯속이다. 그의 시 세계 지평은 천문학에서부터 과학, 역사, 철학, 고전, 인문학 등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글이 어렵다는 것은 독자의 지식과 사상이 작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눈으로 흡입하여 가슴으로 쓴 글은 읽기 편하나 머리로 빚어낸 글은 뜻 파악이 쉽지 않다.

사나운 험산도 간난 끝에 올라보면 골짜기까지 보인다. 오르기를 포기하고 쳐다보면 한쪽 윤곽만 보일뿐 더러 고개가 아프다. 남이야 어쩐지 몰라도 머릿속이 텅 빈 내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처음엔 그분도 서정적 시를 많이 쓰셨다 한다. 회두리판에서, "1960년도 5·18까지는 순수 서정시였으나 5·18을 겪고 나서는 병원이 도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내 국군이 내 국민을 학살, 학대하는 현장을 직접 목도했기에 예술지상주의의 문학은 자홀의 사기라 자각, 사회·국가·민족 및 관념적 이념과 종교 조직의 동아리란 곧 권력자들의 노리개에 불과하며 그 노리개의 최고 깃발인 신들의 싸움 역사인 유신문명의 역사전쟁이라 봤다"고 했다.

진실이 아닌 글은 사기다.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론 7쪽)는 "거짓을 '참' 인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음! 참을 보고도 죄악의 심연에서 뒹굴어야 하는 인간의 비참"을 한탄했다.

'잘 살고 갑니다'는 미래의 죽음까지를 성찰과 사유로 쓴 글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얼핏 모순 같아 보여도 문학은 무량세계다. 살아서는 내가 쓰고 죽은 뒤에는 남들이 다시 풀어쓴다.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시(輓詩)가 있듯 자기 죽음을 미리 가정하고 성찰한 자만 시나 자만 사(詞)도 있다.

삶과 죽음은 거기서 거기다. 보이는 것이 이승이요 보이지 않은 게 저승이다. 신의 피조물인 우리 생은 시한부다. 그걸 알면서도 죽음은 예고가 없기에 한 치 앞을 모른 체 멍청하게 살고 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허방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살아있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다.

죽음은 절망이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권력을 휘둘러 본 사람일수록 생에 대한 미련이 많다. 더 누리고 싶어 야차같이 권세 줄에 매달린다. 돈 범벅 속에 묻혀본 사람일수록 죽음을 애통해 한다. 나는 권력의 맛을 본 적도 재미로 돈을 만져 본 적도 없으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세태를 두고 진 시인은 "살고 싶다가 거게다. 마지못해 죽는 것이다"(마케 질문)라 했다. 교활한 재주꾼도 피할 길이 없어 죽는다. 고 이어령 교수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 죽음도 함께 있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죽음의 바탕이 있기에 생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잘 살고 갑니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글이 없다. 옥안에 홍조를 띤, 이만하면 잘 산 삶이지 싶다.

진 시인은 철저한 무신론에 유물론자며 실존주의자다. "나 죽었다며/ 왜 절하니/ 내가 거기 있간디/ 꽃 한 송이도 꺾지 마/ 내가 보간디/ 나 좋단디/ 왜 네가 우냐"

'내 유언'이란 시인데 남들이 생각지 못할 발상이다. 혼 잃고 땅에 묻힌 백(魄)이 성묘 온 사람을 기억해줄리도, 꺾어온 꽃을 볼 리가 없다. 꺾인 꽃만 가엽다.

얼마 전 시제를 모시고 왔다. 열한 분을 모시는 시제인데 묘가 있는 곳도 모르면서 산기슭 길가에 돗자리를 펴고 상을 차렸다. 제일 윗분은 400년 전쯤의 조상이다. 산속 영들이 제사상 때문에 내려오셨을 것 같지도 않고 400년 뒤의 후손들을 보시고자 했을 리는 더욱 만무하다.

그렇다고 내려온 전통을 그만 둘 수도 없는 일,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다. 금년 이후, 선산에 핀 진달래꽃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령 제사는 모시지 않더라도 욕되게 살지는 않아야 후손이다. 어디 무슨 ○씨라 자랑하기 전에 내가 떳떳해야 조상이 빛난다.

社 說

출산·육아 인프라 붕괴, 아동 인구 급감 불렀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광주·전남 지역 산부인과·소아과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147곳, 산부인과 의원은 1319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곳으로 전국의 1.9%, 산부인과는 36곳으로 2.7%에 불과했다. 전남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6곳으로 전국의 1.2%, 산부인과는 18곳으로 1.4%에 그쳤다.

문제는 의원 숫자도 적지만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광주에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58곳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있었지만 10년 사이 27.6%(16곳)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의원도 45곳에서 20%(9곳)나 감소했다. 전남은 산부인과 의원이 10년 전 24곳에서 25%(6곳) 감소해 감소율이 전국 최고였다.

출산·양육 인프라의 급감은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015년 29만 2000명에서 2021년 23만 3000명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30만 6000명에서 24만 9000명으로 줄었다. 양 지역 모두 아동 인구가 불과 6년 만에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역의 출산·육아 인프라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의원 앞에서 줄 지어 대기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확보 대책, 열악한 진료 환경 개선,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노사정 대화 중단 초래한 강경 진압…파국 막아야

경찰의 노조 활동 강경 진압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엊그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19일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설치된 망루(높이 7m)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발단이 됐다. A사무처장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임단협 타결을 사측에 촉구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로 머리를 다치고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며 광양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측은 'A사무처장의 석방과 과잉 진압을 벌인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 의장은 "금속노련 간부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노정 관계가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채널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5년 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에서 빠지게 되면 노동계 현안이 겉돌게 된다. 최저 임금, 근로 시간 등 하나같이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노동계는 노정 대화가 단절된 상태의 노동개혁이 친기업 편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묵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고 전향적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강 in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와 메시, 프랑스의 포그바 그리고 한국의 이강인. 이들의 공통점은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36골을 넣고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맨시티의 홀란 역시 이 대회가 배출한 스타다. 2019년 노르웨이 대표로 출전한 그는 한 경기에서 무려 아홉 골을 넣고 득점왕을 차지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축구 스타의 산실이자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국은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신연호·김종부 등 무명 선수들을 이끌고 4강의 기적을 일궜다. 축구 대표 팀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의 탄생을 알린 대회로, 브라질과 준결승전이 열린 날엔 한일월드컵 4강 때처럼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였다.

김은중호는 전 대회 준우승국이지만 강팀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골짜기 세대'라는 말까지 들었고, 잘하면 16강이고 예선에서 '광탈'(광속으로 탈락)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조별 리그부터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볼 점유율과 슈팅 수에 밀려도 결국은 이겼다. 수비에서는 악착같이 버티고 공격에서는 원 샷 원 킬의 골 결정력으로 승부를 갈랐다. 특히 여덟 골 중 절반을 세트피스에서 뽑아냈다. 경기마다 심판 판정에 불운이 있었지만 실력으로 극복했다.

이번 대표 팀은 마치 '유로 2004'에서 우승했던 그리스를 연상케 한다. 당시 그리스 감독이 "이기는 전술이 강한 전술"이라며 수비 위주의 전술로 기적을 이룬 것처럼, 선수들이 원 팀으로 뭉쳐 조직적인 플레이로 내로라하는 강팀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있다. 한국은 예선에서 프랑스를 꺾고 8강전에서는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잡은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마저 탈락시키는 등 우승 후보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팀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은중 감독은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팀이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오늘 이탈리아만 꺾으면 4년 전처럼 '2강 in'의 꿈이 현실이 된다. 공교롭게도 지난 두 대회에서는 4강전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팀이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